

“포인트, 잘 활용하는게 포인트” 카드사 캐시리스 붐

〈비현금결제〉

KB국민 ‘소상공인 포인트 상품’
하나카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우리카드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유투이미지

최근카드사가카드포인트를활용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내놓고있다.기존금융서비스와대비해소비자편의와이익이더강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금융소비자들의눈길을끌고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소상공인 포인트 상품 서비스’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떼지 않은 매출대금 전액을 유효기간이 없는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후 가맹점수수료를 떼고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가맹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를 위해 영세 가맹

점주 전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는 적립받은 포인트를 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역시 카드 수수료는 면제된다.

하나카드는 내년 초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결제계좌와 연동해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 체크카드와 달리, 포인트 계정만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고객(외국인, 미성년자 등)도 간편하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카드의 설명이다.

국제브랜드로 카드를 발급하면 별도의 환전이나 해외 이용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단순 포인트 사용시에는 받을 수 없던 추가 적립 및 캐시백 할인 등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엔 자동충전을 진행할 수 있고,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 내의 신용 또한 제공해 결제의 편의성을 높였다.

우리카드는 지난 10월부터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우리카드 스마트앱 및 모바일웹에서 사전에 지정해 포인트(위비풀머니, 모아포인트) 금액만큼 국내 온·오프라인가맹점에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점의 포인트를 사전등록한 고객의 경우 2만원을 결제할 때 5000점은 포인트로 자동 차감되고 차액인 1만5000원만 결제가 된다.

기존에는 포인트 결제 가능 가맹점을 확인해 방문한 후 직원에게 포인트 사용을 요청해야 했다면, 이 서비스는 국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별도 요청 없이도 보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비현금결제는 주요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현금 선호도가 높았던 일본에서도 최근 ‘캐시리스 캠페인’을 통해 비현금결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올해 10월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음식점 등에서는 비현금결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6월 대비 7.8~1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병영 여신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아직 캐시리스 캠페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관련 제도 정비도 과제로 꼽히고 있으나 일본 내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비현금결제 선호도가 상승하는 등 인식개선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IBK기업銀 베트남 진출기업 위한 자산관리 선택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자금관리서비스 ‘IBK e-브랜치(branch) VINA’를 출시했다.

‘IBK e-branch VINA’는 국내의 ‘IBK e-branch’로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법인과 국내 모기업을 연계해 통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현지 법인은 ‘IBK e-branch VINA’를 통해 ▲베트남 주요은행 계

좌 통합관리 ▲모계좌 입금 ▲현지 기업 내부시스템(ERP)과의 연계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국내 모기업은 ‘IBK e-branch’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자금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IBK e-branch’는 계좌 및 카드 관리·지급·수납, 세금계산서 발행, ERP연계 등 전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자산관리 시스템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한 제4호 국공립어린이집 ‘청송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두번째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윤경희 청송군수(왼쪽 세번째),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왼쪽 첫번째) 등 참석한 내외빈 및 원아들과 함께 개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송 하나어린이집 개원... 농촌 ‘첫 결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청송군과 함께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한 제4호 국공립어린이집 ‘청송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윤경희 청송군수,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원아들과 함께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송 하나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건립되는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다. 청송군 파천면 인근은 계속된 아동수 감소로 그간 운영해 오던 민간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쇄될 상

황이었으나 하나금융그룹과 청송군의 협력으로 매입 후 리모델링을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자칫 보육 사각지대가 될 수 있었던 지역에 양질의 보육 환경이 조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4월 충남 홍성군, 11월 서울 강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했고 명동·여의도·광주·부산에 차례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또 전국 46곳의 지역에서 어린이집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이어나간다.

/홍민영 기자

저축銀 3분기 실적 ‘好’... 누적 순익 9374억

대출금 지난해 말 비 5.8% 증가
대출 늘어 이자익 2000억 이상 ↑

저축은행들이 올해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늘면서 이자이익이 급증한 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3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2000억원 이상 늘었다.

총자산은 7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6.7% 증가했다.

대출금은 6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8%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업대출은 법인대출 위주로 늘었다. 자기자본은 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8% 증가했다. 순이익 시현 등으로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유상증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2%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6%로 전년

〈주요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8.1~12월	'18.1~9월 (A)	'19.1~9월 (B)	증감 (B-A)	증감률
영업손익(A=a+b-c-d)	13,198	10,158	11,422	1,265	12.5
이자이익(a)	41,809	30,985	33,118	2,133	6.9
비이자이익(b)	△3,805	△1,937	△2,458	△521	26.9
비용					
판매및관리비(c)	12,344	8,997	10,010	1,013	11.3
대손충당금전입액(d)	12,462	9,893	9,228	△665	△6.7
영업외손익등(B)	△2,110	△1,660	△2,048	△388	23.4
당기순이익(A+B)	11,087	8,498	9,374	877	10.3

/금융감독원

말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9%로 전년 말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2.0%포인트 낮아진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1%포인트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1.8%로 지난해 말 대비 3.4%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

족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은 15.08%로 지난해 말 대비 0.75%포인트 상승했으며,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취급액이 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우리♡뱅샐’ 손잡고 대출 조회·약정 서비스

〈우리은행·뱅크샐러드〉

우리은행은 뱅크샐러드와 우리비상금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우리♡뱅샐했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고객이 직접 우리은행 우리비상금대출의 개인별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비상금대출 금리 확인하기’ 서비스를 지난 18일 오픈했다. 이 서비스가 지난 6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우리은행과 뱅크샐러드는 관련 오픈API 개발을 진행했다. 고객은 뱅크샐러드 앱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회한 후, 위비뱅크 앱과 연동해 대출을 약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

이번 이벤트는 뱅크샐러드 앱에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위비뱅크 앱에서 대출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매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빙스 외식상품권을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NH농협, 금융권 최초 ‘핀테크 개발자 센터’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개발자 플랫폼 센터인 ‘NH핀테크 오픈플랫폼 개발자 센터’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NH핀테크 오픈플랫폼 개발자센터’는 개발자들이 금융서비스 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센터다. API 개발 가이드와 예제소스, 오류코드, 금융API 등을 제공하며, 웹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핀테크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25개의 API 테스트 도구를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